

3

위지(魏志) 동이전에 기록된

히미코(卑彌呼):

역사적 기록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야요이 시대의 지배자

위지(魏志)의 왜인전(倭人傳)은, 서기 239년부터 248년 까지 9년에 걸친 기간중에 북 큐우슈우에 파견된 중국 사절들의 보고를 기초로 해서, 서기 280-297년 기간중에 편찬된 역사 기록이다.¹ 위지는 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인은 대방(帶方) 동남쪽 큰바다 한가운데, 산들이 많은 섬에서 (부락)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다. 옛날에는 백여개의 (부락)국가가 있었다. 한(漢)나라 때 왜의 사자가 조정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요즘에는 삼십여개의 (부락)국가들이 사신과 서간을 통해 우리와 소통을 하고 있다. 군(郡)에서 왜로 가려면,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다가, 한국땅을 지나

¹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중국왕조 정사(正史) 끝부분마다 “동이전”(東夷傳) 같은 제목을 부쳐서, 부록의 형식으로 그들의 이웃 나라들을 기록 했었다.

(歷韓國), 남쪽을 향해 방향을 돌려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 그 북쪽 해안인 구야한국(拘婁韓國)에 도착한다. 여기까지가 모두 7천여리이다. 구야한국으로 부터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천여리쯤 건너 가면 대마도(對馬島)에 도달한다. . . . 여기서 다시 한해(瀚海)라고 부르는 바다를 건너 천여리를 가면, 또 하나의 큰 (부락) 국가에 도착한다(至一大國). . . 다시 바다를 건너 천여리를 가면 말로국(末盧國)에 도달한다. . . 이제 육지에서 동남향으로 5백리를 가면, 대대로 왕이 다스리는 이도국(伊都國)에 도달한다. 이 모든 (부락) 국가들이 여왕국(女王國)에 속한다. 군에서 사절(郡使)이 왕래 할 때에는 항상 이곳에 멈춘다. . . .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여왕이 도움을 정하고 있는 야마이치국(邪馬壹國)에 도달한다. . . . 이곳에서 여왕나라의 경계가 끝난다. 그 남쪽은 남자를 왕으로 모시는 구노국(拘奴國)이 있다. 이 나라는 여왕에 속하지 않는다. . . (Tsunoda, 1951, 영역판 참조).”^{<1>}

위지는 계속 기록한다: “여왕국의 북쪽에는, 각 나라를 검찰(檢察)하기 위해 특별히 한명의 대솔(大率)이 주재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그 위세에 놀려 두려워 하고 있다. 이 관리는 그의 공관을 이도국(伊都國)에 설치하고 있다. 그 나라에는 또 자사(刺史)에 해당하는 관리가 있다. 왕이 경도(京都)나, 대방군(帶方郡)이나, 한(韓)의 여러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혹은 군(郡)이 왜국(倭國)에 사신을 보낼 때에는 모두 그 항구에 멈추어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여왕에게 보내는 문서나 물품에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2>}

위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나라는 원래 남자로 임금을 세웠었다. 그로부터 칠, 팔십년이 지나, 왜국에 전란이 발생해서 서로 싸우기를 어려워가 지났다. 그리고서는 나라 사람들이 합의해서 한명의 여자를 왕으로 모셨다. 그 여자 이름이 히미코(卑彌呼)인데, 귀신을 다루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들었으나 남편은 없고, 남동생이 있어 정사를 도왔다(有男弟佐治國).”^{<3>}

위지는 또: “정시원년(서기 240년), 대방태수 공준이 건중교위

제준에게 조서와 인수(印綬)를 주어 왜국으로 보내, 왜왕을 배알케 했다. . . .⁴⁾ 경초 2년 유월(서기 238년), 왜의 여왕은 대부(大夫) 나손미 등을 대방군에 보내 천자께 조공을 드릴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했다. 태수 유하는 그들에게 관리를 수행시켜 경도(京都)로 보냈다. 그해 12월, 왜의 여왕에 대한 답으로 조서를 내려, 히미코를 친위왜왕(親魏倭王)이라 부르도록 했다. 대방태수 유하는 대부 나손미와 차사(次使) 쓰시고리가 귀국하는 편에 사신을 딸려 보냈다. (왜의 사절이) 네명의 남자 노예, 여섯명의 여자노예, 2장 길이의 반포(班布) 2필, 등 공물을 가지고 경도에 왔었기 때문에 (위 조정은) 히미코에게 친위왜왕 이란 칭호를 제수하면서, 금인(金印)과 자수(紫綬)를 포장 봉인해서 대방태수를 통해 히미코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2 4)}

히미코는 부족 수장들 연맹체의 진정한 지도자였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단지(무속적인) 고문역할을 하는 존재 였었는데 중국 사신들 눈에 여왕으로 군림하는 통치자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위지에 의하면, “정시 8년(서기 247년) 태수 왕기가 대방에 부임했는데, 당시 왜의 여왕 히미코는 구노국왕 히미구쿠와 불화 상태에 있었으며, 재사와 오월등을 대방군에 파견해서 상호간에 공격을 하고 있는 왜의 현황을 설명했다. . . . 히미코가 죽고나서 . . . 다시 남자왕이 추대 되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 . . 그래서 히미코의 인척인 이요(壹與)가 13살의 나이로 여왕으로 모셔졌고, 나라는 비로서 평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⁵⁾

우리는 후한서(後漢書)에도 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위지가 편찬 되고나서 훨씬 후인 서기 445년경

²공손씨(公孫氏)들은 후한말기에 요동땅에 독립된 영역을 만들었다. 서기 204-220년 사이에 그들은 낙랑군을 점수하고, 그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했다. 요동은 그후 서기 238년에 위(魏)에게 점령 되었는데, 위는 낙랑과 대방도 함께 점수했다. 서기 313년, 낙랑군은 고구려에 점령 되었고, 대방은 백제의 복진과 더불어 소멸되었다.

에 편찬된 것이었고, 상당 부분 위지에서 나오는 왜에 관한 기록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후한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왜인은 한(韓)의 동남쪽 큰바다 한가운데, 산으로 덮힌 섬들에 살고 있었으며, 백여개나 되는 (부락)국가들이 있었다.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이후, 30여개의 나라들이 사신이나 서간을 가지고 한(漢) 조정과 접촉을 했다. 각 나라는 세습적인 왕을 가지고 있었다. 대왜의 왕(大倭王)은 야마타이국(邪馬臺國)에 거처하고 있었다. 낙랑군은 그 나라로부터 1만 2천리 거리에 있다. (왜 의)서북쪽 경계에 있는 구야한국(狗邪韓國)은 7천여리 거리에 있다. . . . (왜땅에는) 소와 말(牛馬), 호랑이, 표범, 양, 까치 같은 짐승이 없다. . . . 남자들은 모두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하고 있다. . . . 건무중원 2년 (서기 57년), 왜노국(倭奴國)은 자칭 대부라는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그 나라는 왜의 (부락)국가들 중에 남쪽끝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었다. 광무제는 그에게 인수를 하사했다. 안제(安帝) 영초 원년(서기 107년), 왜국왕은 160명의 노예를 바치면서 일현을 청했다. 환제·영제 기간중(서기 147-189년), 왜국에서는 큰 난리가 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다. 여러 해 동안 통치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히미코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안 했으며, 요술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자를 왕으로 만들었다. 시녀가 천명이나 되고, 그 여자를 직접 본 사람은 별로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남자가 음식을 날라주고, 말씀들을 전달했다. . . . 여왕국을 떠나 천여리를 가면 구노국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왜나 마찬가지로 종족이지만, 여왕에 복속하지는 않는다 (쓰노다, 1951, 영역 참조).”⁽⁶⁾ 이 후한서에서 『대왜왕(大倭王)』이라던가 『야마타이국(邪馬臺國; 야마이치 邪馬臺國 대신)』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후한서의 저자가 4세기, 5세기경에 일본에서 전개된 상황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위지는 히미코 여왕의 출생이나, 그 여왕의 나라였다는 야마이치의 기원에 대해,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

는 3세기 전반에 일본을 통치 했다는 오키나가-타라시(神功皇后)에 대해 장황한 기록을 하고 있다. 많은 사학자들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진구우(오키나가-타라시)의 얘기가, 바로 위지의 히미코 얘지에서 암시를 받아 쓰여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된 진구우의 얘기가, 그래도 약간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절에서 히미코(혹은 진구우)의 근원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일본서기(NII: 81)는 서기 562년, 가야가 신라에게 정복 되었을 때 킨메이(欽明)가 발표한 조서 내용에, 진구우(息長帶日賣命)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의 선조 오키나가 타라시(氣長足姬尊)가 천하를 순방 할때 . . . 극한적인 상황에 빠진 신라의 처지를 보고 애처롭게 생각해서 . . . 다 죽게된 왕의 목숨을 구해주고, 요해지(要害地)를 제공해 주는등, 신라가 받을 자격도 없는 영광을 베풀어 주었다. 도대체 우리 오키나가 타라시가 어떤 면에서 신라를 박대 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백성들이 신라에 대해서 무슨 원한의 감정을 표시한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신라는 긴 창과 강궁(強弓)을 가지고 임나(任那)를 핍박했다.”³(5. 1. 4)

이 킨메이의 조서 내용만을 보면, 오키나가 타라시 와, 가야(임나)와, 신라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혼란에 빠지게 될수 밖에 없을것 같다. 더군다나 고사기의 제2권(KP: 291-293)에는, 아메노 히 호코(天文日矛)가 달아난 그의 처(그 여자는 붉은 보석으로 부터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를 찾아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옛날에 신라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메노 호 히코 였다.”³ 이 얘기는 결국에 가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즉, 아메노 호 히

³고사기(KP: 293)에 의하면, 이 신라왕자 아메노 호 히코가 보석, 두줄의 구슬, 파도를 일으키는 보자기, 파도를 자르는 보자기, 바람을 이르는 보자기, 바람을 자르는 보자기, 연안 바다의 거울, 해변의 거울, 등 여덟가지 보물을 일본으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코의 증손자는 그의 질녀를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키나가 타라시의 어머니라는 것이다.⁶⁷⁾ 오키나가 타라시란 바로 진구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고사기 기록에 의하면 진구우가 바로 신라 왕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코벨 부부(1984: 12-15)는 타라시왕(仲哀)이 가야의 왕이었다고 추리를 하고, 또 오키나가(神功)는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대로) 서기 193년에 주우아이(仲哀)의 왕비가 된 것 이라고 추측한다. 일본서기(NI: 218)에 의하면 이 타라시왕은 진구우를 맞이하기 전에 이미 그의 삼촌의 딸을 취하여 왕자를 낳게 했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왕자를 가졌다. 코벨 부부가 상상해 보는 것은, 오키나가 타라시(진구우)도 시일이 지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이가 타라시왕을 계승할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라시왕은 남쪽의 어떤 야만족을 정복해서, 그 땅을 오키나가와 그녀의 아기의 봉토로 만들어 주려 했는데, 오키나가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코벨 부부(1984: 15-19)의 얘기다: “주우아이의 대신(大臣)이며 최고의 남자 무당은 다케노우치였다 . . . 사건의 전개를 살펴 보면, 이 대신-무당은 진구우의 야심 만만한 (일본)정복 계획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의 첫 연인이었다 . . . 주우아이의 죽음을 수습한 뒤에, 젊은 진구우와 그는 고령(현재의 대구 지역)을 도읍으로 하고 있는 대가야 지방에서, 모험을 찾아 다니는 군인들을 모아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분명히 백제로도 사신을 보내 그 곳의 왕국과도 협상을 했을 것이다. 즉, 진구우의 계획을 지원해 주면 그녀가 바다 건너 그 땅을 정복해서 백제를 종주국으로 섬기게 하고, 가야연맹의 영토도 백제의 지배를 받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서기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고령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향하는 진구우의 정복 경로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 저자들은 진구우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큐우슈우에서 출발시켜 고령으로 일단 데리고 온 다음에 남쪽으로 되돌아 가는 경로를 따르게 한다. 즉, 진구우는 남한

땅을 평화스럽게 지나 고령에 도착하고, 그런 연후에야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 전투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다.⁴ . . . 다케노우치를 군사 고문관으로 삼고, 백제로 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은 다음, 또 신라의 도움까지 받게된, 진구우의 바다건너 땅에 대한 정복계획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신라는 80척의 조공선에 금과 은을 가득채워 보냈다고 한다. 이쪽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도되는 이런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배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모두, 진구우와 그의 함대가 아무 손상이 없이 큐우슈우에 도착했다고 보고 한다.” 이 얘기는 물론 코벨 부부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들이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일본서기의 기록을 읽어 볼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NI: 221)에 의하면, 서기 199년 어느날 타라시왕이 어떤 쿠마소(熊襲)족을 공격하기 위해 신하들과 협의를 하고 있었다: “이때 어떤 신이 (진구우)황후에게 계시해 주기를 . . . ‘그 (쿠마소)나라는 기골이 없는 땅이다. 그런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가치가 있느냐? 그나라 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 그곳은 처녀에 견주에 볼수 있는 보화의 나라, 무카쯔 국(向津國)이다. 그 나라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진구우(오키나가 타라시)가 일본(큐우슈우땅)을 엄두에 두고, 이런 말을 신탁(神

⁴고사기(KP: 262-263)에 의하면, 진구우는 놀랄만큼 아무 힘도 안들이고 신라와 백제를 정복할수 있었다: “그리고서, 이들 신의 교시를 그대로 좇아서, 그들은 군대를 정돈하고 배들을 동원했다. . . . 그러자 그들이 항해를 해서 가려는 바로 그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배들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이들 파도는 그 배들을 신라땅에 상륙시켜, 그 나라의 절반을 지나 멈추게 했다. 이것을 보고 그 나라 왕은 두려움에 떨며 ‘이제부터는 복종을 하겠습니다. . . .’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신라땅은 왕실의 말을 기르는 곳이 되었고, 백제땅은 해외에 있는 왕실 관가로 만들어졌다. . . . 그리고서 진구우는 바다를 건너 되돌아 왔다.”⁴⁸ 일본서기(NI: 231)에 의하면, 진구우가 서기 200년에 말뚝이꾼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신라왕의 이름이, 신라 5대왕 파사매금(婆娑寐錦, 재위 80-112년)이라는 것이다.

託)의 형태로 타라시왕에게 얘기 해준 것이라고 상상해 볼수 있다.

아무튼 간에 타라시왕은 황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신의 말(神言)을 전달 받았다(NI: 221-222): “만약 당신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준다면, 그 나라는 칼에 피한방울 묻치지 않고도, 틀림없이 스스로 당신에게 복속하게 될 것이다 . . .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낼 때 왕의 선박과 눈을 헌납 하도록 해라.” 이 신의 말을 전해들은 왕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왕은 (진구우를 통해서) 신에게 대답했다: “내가 두루 살펴 보니, 바다만 보이고 어떤 나라도 보이지 않았다. 그 거대한 빈공간 속에 어떤 나라가 존재 할수 있겠느냐? 근거없는 환상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신이 도대체 그 누구냐?” 왕으로 부터 이런 말을 듣게된 진구우(오키나가)는 그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NI: 222): “나는 그 나라를 마치 하늘이 물에 투영되어 보이는 것처럼 볼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은 아무 나라도 없다고 욱이면서, 내가 전하는 신의 말을 비방 하는가? 왕 당신은, 그 같은 말을 하면서 내말을 전적으로 불신하니, 그 나라를 얻을수 없을것이다. 내가 지금 막 임태한 아이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것이다(始之有胎 其子有獲焉).”^{<10>} [일본서기의 이 기록은, “바다 건너의 땅” 즉 일본이, 진구우가 임태한 천황(胎中之帝)이라고 부르는, 호무다(應神)가 차지하게 될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오키나가(神功)는 타케노우치(武內)대신의 도움을 받아 왕을 살해 했던것 같다. 일본서기는 (NI: 222) “천황(주우아이)의 상(喪)을 감추어, 천하가 그 사실을 모르게 했다”라고 기록했다. 일본서기(NI: 224)에 의하면 “왕이 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천하가 왕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동안 왕의 시신을 몰래 궁중에 매장하고, [일본에 대한]정벌을 준비 했다는 것이다.^{<11>}

오키나가(神功)는 그녀의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NI: 228): “내 비록 못나고 어리석은 부녀자에 불과 하지만 . . . 모든 신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 . . 우리는

무기를 휘두르며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갈 것이다. 선박들을 준비하라. 우리는 그 보화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의 거사가 성공을 하면, 군신이 모두 그 공을 인정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실패하면 나 혼자만이 그 책임을 질 것이다.”

일본서기(NI: 228)은 진구우가 선박과 군사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각 고을에 선박들을 모으고,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군졸들을 모으기가 힘들었다. 이에 진구우 황후는 ‘이는 필시 신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오오미와 신사(大三輪社)를 세우고 칼과 창을 바쳤다. 그러자 군졸들이 스스로 모여 들었다.”^{5<12>} 일본서기(NI: 231)는 “신라왕이 80척의 배에다 금·은·비단을 실어 진구우의 군대를 따라 가도록 했다”고 말한다.^{6<9>}

일본서기(NI: 320)에 의하면 “그해 겨울, 시월 3일 . . . 와니항구(和珥津)로 부터 출항을 했다. . . . 그러자 바로 배가 가는 방향으로 큰 바람이 불어 주었기 때문에, 파도만을 타면서, 키를 잡거나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일본서기는 진구우가 항해를 시작한 때가 바로 “겨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북서쪽에서 남동쪽 일본을 향해 부는 계절풍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부터 일본으로 항해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5<12>}

고사기(KC: 289)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고 있다: “이 거사가 채 마무리 되기 전에, 오키나가(神功)가 임태하고 있던 아이가[한국 땅에서]태어나려 했다 . . . 그녀는 돌을 한개 주워서 치마의 허리춤에 동여 댔다. [그리해서 그녀는 한국으로 부터] 큐우슈우 땅에 건너간 다음, 아이를 낳게 되었다 . . . 그녀가 허리춤에 동

⁵바알리(1973: 16)는 선박을 이용한 일본의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의 항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항해와 조타 방법은 원시적이였다 . . . 그들은 계절풍에 의존 할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보통, 바람이 서쪽으로 부는 봄에 출발해서,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 겨울에 돌아 왔다. 최단거리의 항로는 . . . 한반도 남단과 큐우슈우를 가르는 115마일 해협을 가로 지르는 것이다.”

여 됐던 그 돌은 큐우슈우의 이토마을(伊斗村)에 있다.”^{<8>}

고사기(KC: 292)에 의하면 오키나가(神功)가 큐우슈우의 왜나라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했다”고 하며, 또 아이나 다름가 “가고사카 왕과 오시쿠마 왕이 오키나가의 도착 소식을 듣고, 그녀 일행을 매복 공격할 생각으로 . . . 군대를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국땅으로 부터, 군대를 가득 태우고 상(喪)을 위장해 건너온 배들로 부터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들과 접전을 시작했다고 한다.

고사기(KC: 293)는 오키나가(息長帶日賣命)의 군대가 오시쿠마 왕의 군사를 야마시로 까지 추격했고, 그곳에서 오시쿠마 왕의 군대가 돌아서서 대항을 했기 때문에 양군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싸웠는데, 결국은 적군이 아후사카로 달아 났고, 거기에서 또 한번 접전을 했지만, 오키나가 군이 이를 패퇴시켜 사사나미에서 모두 섬멸 되었다고 한다. 한편 추적을 당하게 된 오시쿠마 왕은 신하 이사히와 함께 한척의 배에 올라 바다로 떠내려 가다가, 결국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3>}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구우가 큐우슈우의 대부분을 정복했으며, 위지(魏志)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왕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의하면, 진구우가 정복한 나라는, 바로 그녀가 한국땅에서 잉태하게 된, 그 아이(應神)가 후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有胎其子有獲焉) “바다건너의 땅”을 의미한다. 일본서기(NI: 241)의 서기 201년 기록에 의하면 “신하들이 진구우 황후를 황태후(皇太后)로 높이고, 그해를 그녀의 설정원년이라 했다”고 한다.^{<14>}

고사기에 관련한 오키나가에 대한 기록은 바로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일본서기(NI: 241)는 서기 200년에 태어났다는 “호무다 황자가 진구우 설정 3년 [서기 203년]에 황태자로 옹립되었고 (立譽田別皇子 爲皇太子), 그로 인해 『이하레』에 도움을 정하게 되었다(都於磐余)”고 말하면서, 호무다(應神)에 관련된 짚 얘기들을 계속 추가

시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¹⁴⁾ 사실 일본서기의 진구우 섭정 46년으로 부터 65년에 이르기까지의 기록들은, 전적으로 서기 366년-385년 사이에 발생한 호무다(胎中文帝)에 관련된 이야기들인것 같이 보인다.

일본서기는 진구우의 큐우슈우 정벌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신라와 백제가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서 천선사절과 선물을 보냈다고 해석 할수 있는 기록을 하고 있다(NI: 247). 즉 [서기 247년] 진구우 섭정 47년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백제왕이 공물과 함께 사절을 보냈다. 또 신라로 부터의 조공사가 (백제 사절과 함께) 왔다 . . . 이를 보고 황태후 (진구우)가 크게 기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왕(仲哀)이 소망했던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정을 찾아 왔구나. 하지만, 오호 통재라, 이들이 우리 천황을 뵈울수가 없구나!’ 이 말을 듣고 군신들 중에 눈물을 아니 흘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⁸ <15>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진구우의 큐우슈우 정복 이야기는, 삼국유사(—然, 1983: 75)에 나오는 옛 한국 설화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 같다: “신라 8대 아달라왕 4년 [서기 157년]. . . 동해 바닷가에는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해조를 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위 하나가 (혹자는 물고기 한마리 라고도 한다) 나타나더니 연오랑을 등에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이것을 본 그나라 (일본)사람들은 ‘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왕으로 삼았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다가에 나가 찾아보니, (바위 옆에) 남편이 벗어 놓고 간 신이 있었다. 그녀가 바위 위로 올라 갔더니, 바위는 또한 세오녀를 싣고 연오랑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히 여

⁸일본서기(NI:247)는 바로 그전 해에, 사신이 “백제로 파견되어 왕의 안녕을 물었으며, 이에 백제왕이 크게 기뻐 그 사신들을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나하야 [사절의 우두머리]에게 다섯가지 채색비단 한필씩과 각궁, 화살, 그리고 40개의 쇠덩어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겨 왕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니, 그녀로 왕후를 삼았다.”^{<17>}

일본서기(NI: 224-229)는 오키나가(神功)가 어떤 방법으로 샤머니즘을 행하고 백성들을 미혹 시켰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다. 즉 그녀는 재계의 의식을 행하고, 사당을 건축하고, 다케노우치에게 현금을 타게하고 나카토미에게 사니하(審神者, 신탁을 듣는 관리)의 임무를 부여해서, 친히 신주(神主)들 한테 기도를 드렸다. 또 그녀는 치마로 부터 실을 뽑아 가지고 강에서 물고기를 낚고, 귀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신전(神田)을 갈고, 번개로 바위를 쪼개 물이 흐르게 만들고, 바다물에 몸을 담그기만해서도 머리카락이 즉시 양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18>}

마쓰모토(松本, 1983)에 의하면, 히미코가 백성들을 미혹시킨 샤머니즘은 한국의 남부지역에서 건너온 것인데, 일종의 귀신숭배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북쪽에서는 부족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그들 조상의 혼백을 위한 제사를 드렸으나, 남부지방에서는 한사람만이 중개인으로 선택되어, 조상의 혼백으로 부터 말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샤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⁷ 마쓰모토는 히미코가 부족장들의 연맹체에 대해, 일종의 자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하나의 샤만으로서,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구나국에 대항해) 전쟁을 하는등의 사항에 대해 예언을 해주는 일을 했기때문에, 서기 239-248년 기간중에 큐우슈우를 방문했던 중국 사절들에게, 마치 직접 통치를 하는 여왕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쓰모토(1983)는 히미코(卑彌呼)의 왜(倭)와 비미구쿠(卑彌弓呼)의 구나(拘奴) 사이에 전쟁이 생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 “그 전쟁은 어느정도 인종적 갈등에서 발생한것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남태평양 군도로 부터 계속 남부 큐우슈우 지방으로

⁷마쓰모토(1983)는 “샤머니즘은 중국이나, 한반도 내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신앙을 우상숭배로 간주했다”고 말한다.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과 혼합되어 남큐우슈우인이라는 새로운 종족을 형성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반면에, 북큐우슈우 주민들은 원래 한반도에서 건너왔을 것임에 틀림없다.”⁸

마쓰모토는 여왕국과 구나국의 최종 운명에 대해 세가지의 지배적 의견을 소개 한다: “왜가 후에 구나를 복속시키고, 기나이(畿内)지방으로 이동했다. . . . 구나가 왜를 멸망시키고, 동쪽으로 이주해갔다. . . . 혹은 왜와 구나 모두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기마민족에게 정복되었고, 그 정복자는 가와짜(河内)지역으로 이동해, 야마토 왕조를 창건했다.”

일본 사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일본역사 가운데서 가장 흥미 있는 측면은, 위지의 저자 진수(陳壽, 서기 233-297년)가 히미코의 나라를 『야마이찌(邪馬壹國)』라고 불렀는데 반하여, 거의 모든 일본 역사가들은 이것을 『야마타이(邪馬臺國)』라고 읽고, 또 이것이 『야마토(大和)』를 의미 한다고 이해 하기로 결정 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후한서의 저자 범엽(范曄, 서기 398-445년)은 히미코의 나라를 『야마타이』라고 불러 줌으로서, 그녀의 나라가 기내(畿内) 야마토 지역에 위치 했었기를 열망하는 일본 역사가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하긴 4세기와 5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에 일어난 변화와 발전이, 후한서의 저자에게 영향을 안줄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이 야마토 범엽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그 『악의 없는』 착오를 만들게 했던것 같다. 아무튼 일본에서는, 그 소위 『야마타이 국』의 위치에 대해, 인간의 머리가 짜낼수 있는 온갖 추측을 다해보는 것이 일종의 국민적 여흥이 되었는데, 그만 후루타(古田武彦, 1983)가 일본사람들 귀에 아주 거슬리는 그의 이론을 발표 함으로서, 흥을 깨 버렸다.

타케모토(1983)는 후루타의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에가미(1984)에 의하면 “왜인전(倭人傳)에 기록된 왜인들의 행동이나 풍습은 눈에 띄게 남방적이다. . . . 3세기 중국 사람들에게 왜인이라고 알려진, 후기 야요이 시대의 서부일본, 특히 큐우슈우 지역 사람들의 풍습은, 동남아시아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행해진 풍습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수가 서기 280년에서 297년 사이에 편찬한 위지에서는, 히미코의 나라를 야마이치라고 불렀다. 범엽이 서기 429년에서 439년 사이에 쓴 후한서에서는 그녀의 나라를 야마타이라고 불렀다. 진수는 자기 당대의 역사를 기술했고, 또 그가 기록했던 내용중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자기 자신이 관찰할수 있었다. 범엽은 순전히 기록된 자료에 의존해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몇백년 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위지가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이씨(壹)』란 글자가 86번 나타나고, 『타이(臺)』란 글자가 56번 나타나는데, 진수는 한번도 그 두 글자를 혼동한 적이 없었다. 위(魏)나라 때에는, 종교적·정치적 성소(聖所) 혹은 황제의 궁궐을 의미하는 『타이』라는 이 글자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신성한 글자들 중의 하나였다. 『야(邪)』와 『마(馬)』라는 글자들은 “간사함”과 “말”을 의미하는데, 당시 중국 사람들이 소위 야만인 나라들에 대해 느꼈던 멸시의 감정을 반영하는 이 두글자 바로 뒤에다, 진수가 그 신성한 글자를 사용 했었으리가 만무 한 것이다. 현대의 인쇄체를 보면 이 두글자가 비슷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옛날의 서체는 요즘 같이 비슷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두글자를 혼동해서 잘못 필사를 했을 가능성 역시 아주 희박한 것이다. 야마타이란 것은 범엽의 창작 이었다.

후루타는 또, 한서, 위지, 신당서에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상이한 글자들이 『토』라는 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 되었는데, 그중 어떤 경우에도 『타이』가 『토』라는 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야마이씨의 위치에 착오가 있었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지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록이 모두 2,237번이나 있는데, 진수는 한번도 동쪽을 남쪽으로 혼동한적이 없었다. 후루타는 진수가 잘 알려진 두 개의 지점 사이의 거리를 『리(里)』로 나타낸 경우가 15개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예들을 보면, 위나라때의 일리(一里)란 75미터내지 95미터 였는데, 75미터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그러므로 진수가 서술한 야

마이찌라는 나라는 큐우슈우의 북부에 위치했던 것이다.

밀러(1980: 1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의 팻쇼-국수주의 이념가들은 정교하면서도 아주 유해한 신화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명치이후 천황의 힘과 권위와 신격화된 역할의 근원을, 전적으로 비역사적이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방법으로, 머나먼 옛날로 끌어 올려 놓은 것이다. 그저 평범한 역사적인 물증에도 견뎌낼수 없는 이 신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문명의 중심지를 찾아내어 그 위치를 [쿄토평-나라 지역에다] 확인해 주는 것이 그들로서는 이념적으로 가장 긴급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고대 일본의 이부분에 대한 연구 마저도 엄격히 규제 되었었다. [1945년이전에] 자유로운 탐구 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연구 해 본다는 것은, 가장 극렬한 응징을 자초하는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다.”